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출애굽기 39:1-43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를 통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은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인스펙션은 반드시 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드시라고 한 성막과 제사장 옷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인스펙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일도 평가 하십니다. 천지창조를 셋째 동안 하시면서 그 때마다, “좋다”라는 평가를 하시고, 다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창 1:31)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모든 부분이 그가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출 39:42-43) 출애굽기 39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하신대로 지은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평가,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평가하시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내 인생도 주님께서 평가하실 터인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좋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옷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옷은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출 39:1, 출 28:1b-2) 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모든 제사장 옷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0,31절)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어느 것 하나 자기 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디. 처음부터 끝까지, 실 위치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다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스펙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다 진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삼상 15:9-11a) 부분적인 순종은 돌이킴이며, 거역, 패역이고,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똑같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일 인양 마음대로 생각하고 펼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사울,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시고 평가하셨는데, 신약시대를 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명하시는 이 시대의 옷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롬 13:11-14) 빛의 갑옷,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사 59:17-18) 예수님의 옷은 네 가지 - 곧 공의, 구원, 보복, 열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공의로워야 하며

(공의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들과 싸워야 하고(보복),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것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평가에 다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2. 성막을 평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제사장 옷을 만들었고 인스펙션에 통과하였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곧 하나님의 거처 삼으실 곳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지었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며 패스, 통과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출 39:32)

하나님은 맨 처음 창조 세계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사 66:1-2)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곳이 거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던 거처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의 거처, 구약시대 때의 거처가 있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약시대에 주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고전 3:16-17)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서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 질 수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질 수 없기에,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고전 3:10a) 거룩은 은혜에서 출발하며,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룩을 요청하시면서 그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를 먼저 부르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은혜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 그들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라, 성막을 거룩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가요?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 구원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너희 여호와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목상하면,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옷과 성막을 인스펙션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출 39:43)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 올 것입니다.(신 28: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옷을 점검하십니다. 공의, 구원, 보복, 열심의 옷인지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됨을, 거룩함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말씀을 뒤에 놓고 행복을 좇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스펙션에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인스펙션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퍼센트의 순종을 원하시나요?
3.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4.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